

■ 광주지법 판사들 민원인 직접 만나보니...

# “재판 오기까지 고충 알것같아”

## 법복 벗고 창구 나와 민원 상담 “법원 불친절 해소 계기 됐으면”

“무고 고소를 취하하려는 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왜 소송을 취하하려는 지 내용을 간략하게 쓰시고 종합민원실로 가서 서류만 접수하면 됩니다.”  
19일 오후 광주지법 1층 로비에 마련된 원스톱 민원창구 앞. 광주지법 제2민사부 김규장(49) 부장판사가 법복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맞았다. 처음 민원인을 대하는 터라 왈칵 속스럽고 어색했지만, 민원 상담이 시작되자 김 부장판사의 손놀림과 답변은 빨라졌다.

이가 많은 문씨가 잘 알아듣지 못하자 문씨를 직접 종합민원실 민사 접수 창구에 모시고 가 신청서 접수를 마치도록 했다. 문씨는 “판사님이 직접 이런 일을 맡아줘서 고맙다”는 말을 연신하며 환한 웃음을 짓고 집으로 돌아갔다.  
법정에서나 볼 수 있었던 광주지법 판사들이 사법부의 상징인 법대(法臺)에서 내려와 직접 서민들을

접하면서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19일부터 5월7일까지 직접 창구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체제 행사를 갖고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첫날 지법을 찾은 민원인들은 ▲법원 행정이 아직까지 권위적이고 불친절하며 ▲각 소송별로 많은 서류로 인한 소송 절차에 대한 어려움 등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처음으로 민원 상담을 한 김 부장판사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과중한 재판 업무에 밀려 못해 왔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 민원 부서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보고 재판 당사자들이 어떤 고충이 있는지 직접 알아보는 기회가 됐다”

고 말했다.  
현재까지 민원체험을 신청한 법원은 광주지법 전체 71명의 판사 중 22명, 법원 측은 시간이 지날수록 동참 인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광주지법 최인규 공보판사는 “일단 1차적으로 22명이 신청했고, 올 중순이나 후반에 법관들의 신청을 추가로 받아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민원실에는 하루 200~300여명의 민원인이 방문, 재판 절차·서류작성 방법·사건 검색 등을 상담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지법 민사2부 김규장 부장판사(오른쪽)가 19일 오후 광주지법 1층 민원실에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1일 민원 상담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법 민원실에는 하루 200여 명 이상의 민원인들이 방문, 재판 절차 등을 문의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노인 상대 전화 금융사기 중국인 2명 구속

### 곡성경찰, 3천여만원 피해

곡성경찰청은 19일 전화로 금융사기극을 벌여 수 천만원을 가로챈 왕모(21·경기도 안산시)·하모(23·경북) 등 중국인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께 강모(여·31·곡성군 곡성읍)씨의 집으로 전화해 “누군가에 의해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됐다”고 속인 뒤 보안 등을 미끼로 597만원을 무통장 입금받아 가로챈 등 3명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모두 3

천789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신용카드 명의가 도용된 것으로 착각한 나머지 다급해진 피해자들에게 은행·경찰서·금융감독원 직원으로 행세한 뒤 “구제 해주겠다”며 은행 자동출금기(CD) 앞으로 유인, 돈을 보내도록 했다.  
경찰은 유학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 중인 이들이 “현금 운반액이 불과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들의 배후를 쫓고 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kwangju.co.kr

## 이용호씨 형집행정지

삼에인더스·인터퍼온 등 계열사 자금 800여억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상태에서 최근 일부 확정판결에 대해 재심이 개시된 이용호 전 지연지그룹 회장이 형 집행 정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최성준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의 경우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뒤 유죄가 확정된 징역 3년과 징역 6월의 복역 기간을 마쳤으며, 재심 대상이 된 징역 2년6월 부분의 경우 현재까지 2년을 복역해 형의 상당 부분이 이미 집행된 형을 집행정지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성공적인 사업가

1588-1587  
0518-1500

가장 빠른 '가짜' 성공 이야기  
100년 사업가 '신부'의 성공 이야기

1. 100년 사업가 '신부'의 성공 이야기  
2. 100년 사업가 '신부'의 성공 이야기

### 동서양 최고 명품

1. 100년 사업가 '신부'의 성공 이야기  
2. 100년 사업가 '신부'의 성공 이야기

### 명품

1. 100년 사업가 '신부'의 성공 이야기  
2. 100년 사업가 '신부'의 성공 이야기

## 광주·전남 의료인 3천여명 상경 시위

## 병원·치과·한의원 휴진

### 내일 진료 차질 우려

광주·전남지역 의료인 3천여 명이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악 저지 범의료 총 결기대회'에 참석키로 함에 따라 동네병원 진료에 이상이 걸렸다.  
광주시 의사회는 이번 집회에 치과 의사·한의사·광주·전남 간호조무사회 등 총 1천500여 명이 상경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 의사회는 “이번 정부의 의료법 개악은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며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학병원을 비롯한 병원급의 응급실 운영에 만전을 기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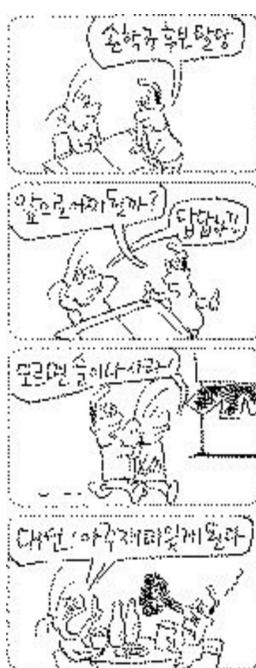
그러나 700여 개의 의원급 병원들은 모두 휴진할 것으로 보여 진료 공백이 우려된다.  
전남도 의사회도 회원 1천750여 명 중 절반 가량인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같은 움직임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역민들의 진료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사들의 집회 참여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병원급 이상 응급진료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사회와 긴밀한 연락을 가지면서 진료 공백이 없도록 하고 있다”면서 “집단 휴진이 발생할 경우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보건소 등 공공 의료기관에 대한 진료시간을 연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大法 “주치의가 인턴 실수 책임 져야”

주치의가 의료행위를 분담한 인턴의 진료행위를 제대로 지휘·감독하지 못해 환자에게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같은 병원 인턴의 처방이 적절하지 않음을 확인하지 않아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주치의 A(38)씨에게 금고 1년에 징역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주치의로서 인턴의 처방이 적절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감독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나머지 환자에게 잘못된 처방에 따른 상해를 입힌 만큼 업무상 과실치상죄

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실상 지휘 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의사가 다른 의사와 의료행위를 분담했다더라도 의료 영역이 다른 의사의 전공과목에 전적으로 속하거나 다른 의사의 사에게 전적으로 위임된 것이 아닌 이상 업무상 주의의무 소홀로 환자에게 위해가 발생했다면 과실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국내 유명 병원의 정형외과 전공의인 A씨는 2000년 3월 수술 중예민 쓰이는 마취 보조제가 컴퓨터에 잘못 입력돼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인턴의 잘못된 처방으로 근육중수술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려 기소됐다.  
/연합뉴스

## 나원침 (7081) 김장동



광주광역시 중구...  
수원신도시 피오레  
062-367-9000

## 짚질방 취객 금품 절도

광주 광안경찰은 19일 술에 취해 짚질방에서 잠든 손님들이 손·발에 찬 열쇠 줄을 면도칼로 잘라 옷장을 열고 10차례에 걸쳐 890만원 상당의 현금 김모(34)씨를 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정상필기자 camus@

## 전직 공무원 '꽃뱀 부부' 경찰서행

“아내에게 다른 남자를 유혹해 성관계를 맺도록 공모, 돈을 뜯어낸 전직 공무원 '꽃뱀 부부'가 나란히 경찰서행.  
○19일 순천경찰에 따르면 김모(52)씨는 아내 이모(34)씨를 시켜 지난달 22일 순천시 해룡면 한 모텔에 A(60)씨와 동침하도록 시킨 뒤 현장을 급습해 “간통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 두 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뜯어냈다.  
○김씨 부부는 “포장마차에서 만난 A씨가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

## ‘야후코리아’ 포르노 동영상 파문

경찰, 관리책임 조사  
포털사이트 ‘야후코리아’(http://kr.yahoo.com)에 남녀 성행위 동영상이 게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야후코리아’는 지난 18일 오후 6시 한 이용자가 남자가 성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긴 약 1분 분량의 동영상을 올린 것을 확인하고, 6시간 후 해당 동영상을 삭제했다고 19일 밝혔다.  
/연합뉴스